

"신천지 60%가 20대"...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

이메일 받기를 하시면 기사 업데이트 시 메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받기

[중앙일보] 입력 2020.02.28 05:00 수정 2020.02.28 16:08

댓글 168

가

가

김지아 기자

최연수 기자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 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추천영상 더보기

“신천지 대구교회에만 청년들이 5000명, 6000명은 돼요. 절반 이상인 거죠. 하루에 청년들이 200명, 300명씩 새로 올 때도 있었거든요.”

<25화> 20대 신천지 탈퇴자를 만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천지 대구교회에 몸담았던 스물네살 A씨의 설명입니다. A씨는 대입 수능을 마친 직후부터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신천지 교회를 다녔는데요.

청년회에서 직책도 맡았던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교인 연락처만 1000여명에 이릅니다. A씨는 “광주 베드로지파에 청년이 가장 많다. 대구 다대오지파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년이 많다”고 설명하더군요.

요즘 세대와 달리 신천지 교인 중엔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밀실팀은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천지 수료식현장에 있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흰옷) 모습. [중앙포토]

'얼굴 띄우기', '환자 만들기'...적극적인 전도

[밀실] 20대가 신천지에 많은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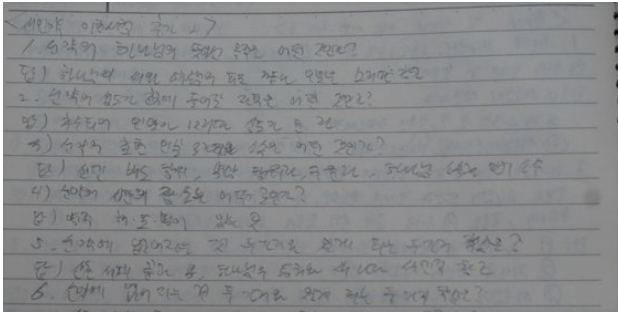
"돌아해보면 저한테 했던 전도도 '얼떡'였던거예요"

A씨는 처음 신천지를 접했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떡'는 '얼굴 띄우기'의 줄임말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신천지교인이 또 다른 신천지교인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걸 말합니다.

A씨는 대입 수능이 끝난 후 재수에 대한 고민을 친구 B씨에게 털어놨는데요. B씨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이라며 교사 C씨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B씨와 C씨 모두 신천지교인이었죠.

A씨가 고민을 털어놓자 C는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담을 권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를 '환자 만들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환자로 인식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당시 C씨는 "휴대전화 망가지면 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가듯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을 만든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신에 대해 대화하고 성경 공부를 권유한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방'으로 불리는 성경 공부 시작됐다고 합니다.



A씨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녔을 당시, 성경공부를 하면서 썼던 노트의 일부. 배경민 인턴

고민·상처 많은 청년, 수능 마친 19·20세 많아

신천지 내엔 '얼딱' 외에도 선물을 주는 '감동주거', 소개 역할을 하는 '사귀미', 1주일에 10명이란 전도 목표 달성을 의미하는 '목달', 학교 등 일상에서 전도하는 '생활 섭외' 등 용어가 자주 쓰입니다.

A씨는 "20대는 누구나 고민이 많고 상처가 있을 텐데 신천지 교인은 고민을 잘 들어준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명에게 고민을 말하면 들은 내용을 교인들끼리 공유해 머리를 맞대고 전도 방식을 짠다"고도 덧붙였다. 그래서 신입 교인 중엔 20대 중후반보다는 대입 수능을 막 끝낸 19·20세의 청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시간 많은 청년이 주된 전도 대상"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A씨는 "청년회가 신천지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더군요. 청년층이 신앙·포교 등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이란 해석입니다. 그는 "장년회에 속한 교인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녀회 교인도 가정을 돌보거나 직장 생활을 해 청년만큼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신천지 내부엔 '여자명, 남자명'이 함께 말을 걸 때 반응이 좋다, '100명에게 말 걸면 1명이 전화번호를 준다'는 통제도 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엔 길거리에서 하는 '노방 전도'는 줄어들고 '문화 전도'가 늘고 있다는데요. 문화 전도는 음악 동아리, 하루 단위 취미 클래스 등을 통한 전도를 말합니다. A씨는 대구 소재 대학의 한 동아리 이름을 언급하며 "겉보기엔 취미 동아리지만 사실 신천지 동아리"라고도 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신천지 센터의 모습. 성경공부 등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신천지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 신천지 교인들은 이 센터를 '스프' 혹은 '센'이라는 은어로 부른다. A씨 제공

A씨도 수년간 신천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습니다. 밴드, 축구 동아리, 네일아트, 캘리그래피 강좌, 독서토론 등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전도 단체가 열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전도"는 하지 않는다"고 A씨는 말하더군요. 전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성·인성·경제력 등을 종합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금전 상황을 보는 건 아니지만, 센터를 오갈 수 있는 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본다. 빛이 많으면 '전도 불가능자'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20대에 직책 주면서 하늘같이 대해줘"

신천지 교회에선 개신교 등 여느 종교와 달리 20대 청년에게도 중요한 직책을 줍니다. A씨는 "사실 청년들은 직업도 없고 밖에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신천지교회 안에서는 '팀장님', '부서장님'이라고 하늘같이 대해준다. 여기에 취하는 청년들도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신천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사명자 14만 4000명 안에 들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선 예비 사명자 교육을 들어야 하고,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선 부구역장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14만 4000명을 강조하는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는 강의 영상의 일부. [유튜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캡처]

"신천지 비판, 청년이 아니라 지도부에"

신천지 활동을 하다 보면 교회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A씨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단절을 우려해 신천지를 그만두지 못하는 청년도 꽤 있다는데요.

그는 "(신천지 교인임을) 일반적인 친구에게 숨겨야 하므로 교회 밖 인간관계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신천지를 나가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탈퇴를 꺼리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에선 탈퇴하는 사람을 '개·돼지', '미혹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인터뷰를 마칠 때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교인들 사이 퍼진 것에 관해 묻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비판받고 있잖아요. 사실 신천지에선 (청년들에게) SNS도 하지 말고 외부 기사도 보지 말라고 해요. 비판의 화살은 청년들이 아니라 신천지 지도부를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아·최연수 기자 kim.jia@joongang.co.kr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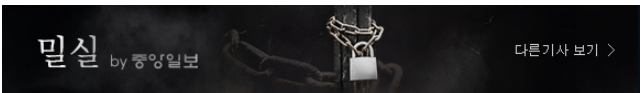
[영상] 몇년전 기자간담회때 본 이만희, 변호사 대동했는데...

[영상]신천지 前교인이 말하는 '대구교회서 코로나 퍼진 이유'

[밀실] 난자생동 90% 미혼女...정부지원? 내돈 300만원 낸다

[밀실] 20학번 새내기 트랜스젠더 "당장 화장실부터 고민"

[밀실] "방에서 15년째"...한국 '허키코모리'는 나가고 싶다



129	477	
-----	-----	--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밀레니얼 실험실 #밀실 #신천지 #코로나19 #신종코로나 #코로나 #이만희 #신천지 종교

이 기자의 다른 연재 기사

1교시

2019 초등연애 모의고사

2019.11.15 05:00

Q.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우시오.
[밀실] "너희 엄마 김치찌개 장인"...여형

초등학생이 푸른 방에는 교실 다.

※ 실제 초등학생들이 적은 답안은 기사 하단에 있습니다.

1교시

2019 스포츠 모의고사

2019.12.20 05:00

Q. 다음 중 축구 선수의 배우는 관록이 아닌 것은?
[밀실]잘못되면 초졸인데 왜

몰렀나...손흥민 부친 '대안학교'

① 독서토론
② 장서관리
③ 인생관리
④ 기타연주
⑤ 국어

밀실

이메일 받기를 하시면
기사 업데이트 시 메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받기

전체댓글 168

게시판 관리기준

[알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0/500

등록

최근순

추천순

반대순

우리의 ****

2020-03-01 23:18:09

신고하기

2

0

내로남불 그저 종교권력 돈 여자뿐이지.이만회교주와 미래통합당하고 일촌이고 새누리당 당명 지어주고 댓글부대 활동도 했고 박근혜정부때 지대한 공을 세운 신천지 아닌가?이만회교주가 국가유공자까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때에 지정 해 주어서 현충원에 간다고 들었고 미래통합당 신천지교인들 많다고 들었다 누구야? 보좌관들인가??

답글달기

박****

2020-03-01 22:28:12

신고하기

2

1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인 정치권보다는 훨 훈훈해 보인다. 이만회를 교주로 떠받드는 것이나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일은 "대깨문"이나 그게 그건데, 최소한 신천지들은 문자폭탄같은 폭력은 없으니 훨 켄들하다.

답글달기

time****

2020-03-01 22:26:37

신고하기

3

0

애들을 세뇌시켜, 꿈없는 현실을 떠나, 가상현실을 만들어 주고, 거기가 천국인양 계급도 주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착각속에 살게해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저질 사이비,이단. 사탄이가 제일 잘하는게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해서 받아들이게 하는거라는데, 거기 딱 맞네. 나중 뒤 돌아보니, 세월만 보냈네 하면, 그애들의 장래는 어떨하겠나?? 이만회같은자가 이런 어마무시한 세력을 만들고 신처럼 군림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이 현실에 절망하고 영혼은 썩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게 이상, 상식이 마비 되어, 현실로 돌아가기 싫은것. 대항사가사건이니, 코로나 확산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만회는 수사, 구속해서 이 어이없는 일을 벌인죄에 합당한 값을 치루게 해야할것이다.

답글달기

The ****

2020-03-01 15:35:30

신고하기

2

0

답은 주장이만회를 내려앉게 하는것이죠 ~그들은 외부와 단절하며 특히 가족과의 단절이 제일 안타까운면이죠 .

답글달기

cann****

2020-03-01 10:38:53

신고하기

14

7

문재인법은 병태바보들이 뭔짓을 못해

답글달기

kosh****

2020-03-01 01:28:14

신고하기

53

0

나라 망신이다,, 이런 사이비 교주가 존재하고 이런 놈에게 돈주고 몸주고 자식 바치고 마누라 바치고,,2020년에 이런 미개한 아프리카 토인보다 더 무지한 인간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니 참답하다.. 종교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저야지 사교화되고 불법이 판치면 더이상 자유를 인정하면 안된다.. 그동안 중 신부 목사들이 보인 불법 탈법 행태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에 사이비는 다 해체 시켜야 한다...

답글달기

방****

2020-03-01 00:21:02

신고하기

38

0

이만회 이 개새키야

답글달기

czar****

2020-02-29 20:48:08

신고하기

36

0

왜냐고? 2,30대 무직자나 알바 등 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방인들로 거의 무기치한 폐지레벨로 투영인간 취급받는데, 신천지에 가면 이민 허가 별로 존재감 10G 속도로 폭증시켜주기 때문 아니겠나?

답글달기

jsmy****

2020-02-29 18:30:58

신고하기

30

1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꼬임에 빠진 bing sin 들

답글달기

존****

2020-02-29 16:57:16

신고하기

17

0

이거보니 이해가 가네 젊었을때 이성애 관심이 많은걸 이용하는거 나도 예쁜 여대생이 전도 해서 교회에 나갔지 기존 정통교회에서 전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답글달기
더보기

다른 기자들의 연재 기사 보기



박용석만평
3월 2일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채팅으로 만나는 변호사·수의사, 비대면 상담
시장 뜬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20년새 1200% 올랐다...강남 아파트
능가하는 강북 '대박 땅'



fol:in insight
"AI는 기술 아닌 경험" 삼성이 밝힌 '네온'사인



알지RG
"뇌만 하면 반값" 시신 동결, 입소문에 400건
쇄도



강갑생의 바퀴와날개
53년된 개인택시, 한때 면허받기 전쟁.. "지금은
위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사설칼럼	국회정당	경제정책	검찰·법원	미국	책	야구
만평	청와대	산업	교육	중국	공연	해외야구
디지털썰전	외교	금융증권	사건사고	일본	미술	축구
e글 중심	국방	부동산	복지	유럽	클래식	해외축구
	북한	과학미래	교통	기타	가요	농구/배구
	여론조사	글로벌경제	환경	토픽월드	방송	
		고용노동	지역		영화	
			건강			
라이프 스타일	여행레저	포토·영상	피플	스페셜	서비스	독자 서비스
패션	국내여행	포토	사랑방	중앙SUNDAY	뉴스레터	중앙멤버십
맛	해외여행	영상	인사	디지털스페셜	이슈페키지	구독신청
렉서리	여행뉴스		부음	통일무지개	트렌드 뉴스	제보
뷰티	Week&			더,오래	기자	보도자료
리빙				먼지알지	인물정보	고객센터
				복지토털	전자판	
				Mr.밀리터리		
				J팟		

중앙일보 고객센터 윤리경영 광고 안내 제휴문의 견학신청 회원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고충처리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등록일자 : 2009.11.2 발행인 : 홍정도 편집인 : 오병상 전화 : 02-751-5114 사이트맵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